

## 황제의 식탁

김인숙  
소설가

도서관에 자주 가는 편이다. 책을 빌리러 가기도 하고, 원고를 쓰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시간을 보내러 가기도 한다. 햇살이 좋은 도서관, 혹은 창밖 풍경이 좋은 도서관에 가게 되면 일꺼서가에서 꺼내온 책은 책상 위에 펼쳐 놓고 그냥 창밖만 내다보고 있게 되기도 한다. 물론 한가한 소리다. 내가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동안, 내 옆자리 사람은, 그리고 옆 옆자리의 사람은, 실은 나 빼 놓고 거의 전부 다 잠시잠깐의 시간도 아까워하며 뭔가를 후벼파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참고서를 풀고, 외우고, 인강을 듣고, 필기하고, 그 위에 빨간색 밑줄을 몇 번씩이나 긋는 사람들.

가끔은 코앞에 닥친 원고마감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 매일 이 다시피 도서관에 갈 때도 있다. 노트북을 싸 들고, 메모지를 챙기고, 연필과 빨간색 색연필과 포스트잇과, 아무튼 닥치는대로 다 챙겨서 매일매일 새벽같이. 그런 때는 정수대 앞, 혹은 화장실 앞의 복도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인사를 받기도 한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가끔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십니까, 묻는 사람도 있다.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공부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 최고라고 알고 있다.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른다. 내게 인사를 건넨 사람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복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은, 갑자기 동지가 되거나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눈으로는 서로 ‘화이팅’하기도 한다.

도서관에 가서 얻는 즐거움 중의 하나는 의외의 책을 발견하는 것에도 있는데, 서가를 왔다갔다하다가 우연히 뽑아든 책에서 눈을 뗄 수 없는 문장을 발견하거나, 읽기를 멈출 수 없는 줄거리에 끌리거나, 상상을 멈출 수 없는 인물들을 발견할 때가 그렇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사 코너를 돌아다니다가 도록 한 권을 발견했다.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 도록은 2019년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되었던 특별전 때 나온 것이다. 제목 그대로 '황제의 밥상'에 대한 것인데, 대한제국 시기의 기록인 만큼 전통과 서구의 물결이 뒤섞인, 말하자면 한식과 양식이 뒤섞인 '밥상의 전환기'에 관한 책이라 하겠다.

도록은 말 그대로 그림과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책이니 서가에서 선 채로 보기 좋은 책이기도 하다. 슬렁슬렁 보다가 다시 끊어두고 또 다른 책을 읽기 좋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불들었다. 개인적으로 난생 처음일 뿐만 아니라 유사이래로도 처음인 낯선 서양 음식 앞에서 조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반응보다 나를 더욱 궁금하게 만든 것은 표현의 방식이었다. 그토록 낯선 밥상 앞에서 그들은 그 맛과 냄새와 온도와 식감을 어떻게 느꼈을까. 그리고 어떤 표현으로 남겼을까.

맛과 냄새와 온도와 식감이라면 익숙한 표현들이 있었을 것이다. 시거나 달거나 짜거나 쓰거나… 그도 저도 아니어서 이맛도 저맛도 아니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구에 관해서라면 어땠을까.

이 책에는 1876년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김기수의 견문록인 『일동기유』가 소개되어 있다. 그 중 6월 3일의 일기에 도쿄의 한 료칸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연회가 서양식이었던 모양이다. 1876년은 조선과 일본이 「조일수호조규」를 맺어 조선이 처음으로 개항을 한 해다. 그 전에도 물론 서구인들의 침입이나 방문이 없지 않았고, 그 서구인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에 서양식 '밥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조사하러 온 조선 관리들을 맞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비공식적이었고 그 연회는 기껏해야 배위에 차린 한끼 밥상일 뿐이었다. 김기수가 일본에서 참석한 이 연회야말로 조선 관리가 공식적으로 참석한, 혹은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정식 서양식 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수는 이 연회를 마치 글로 쓴 정밀화처럼 상세히 묘사해 그의 견문록에 남겨두었다. 그 중의 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식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생화 꺾꽂이 두 병과 조화 두 대를 서로 엇갈려 놓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과자와 떡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의 앞에는 각각 자기 접시 두 개를 놓았는데 접시 한 개에는 백포와 떡을 담았으니 백포는 음식을 먹을 적에 음식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치는 것이고 떡은 음식을 먹는데 둡는 것이다. 접시 한 개는 비어 있고 아무 것도 없었다. 빈 접시의 원편에는 대, 중, 소의 숟가락 세 개가 있는데, 이빨이 있어 음식을 젓가락질할 수 있으며 찍어 먹을 수도 있다.”

도록에는 김기수의 위와 같은 기록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직

접 서양음식을 주문해 먹고 그 소회를 남긴 한 관리의 서찰 내용도 소개되고 있다. 조선 정부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김득량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사촌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서울을 떠난 후로 겪어야 했던 한가지 고충은 외국 음식과 식사법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네. 능숙하게 나이프와 포크 -오래된 야만인의 유물- 를 써야 했던 까닭에 처음 며칠은 제대로 먹지를 못했네. 입술은 베이고 혀를 찌르고 옷에 고기를 떨어뜨리기 일쑤였어.”

김득량은 재기와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사적인 서찰인 만큼 건조한 기록보다 상징적인 과장을 섞은 풍부한 묘사가 돋보인다. 설탕인줄 알고 소금을 커피에 넣었다던가, 꿀인줄 알고 버터를 삼켰다던가하는 일화를 ‘문학적으로’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루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었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네. 주변의 의미심장한 눈길과 웃음을 감지했지만 아무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네. 다른 사람을 따라 하는 것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안전한 바법이라는 점을 간파했지. 주변 사람을 보니 노르스름한 원가를 빵에 바르길래 꿀이라 생각하고 듬뿍 입에 넣었는데, 맙소사! 꿀이 전혀 아니었다네. 영어로 버터라 부르는 음식이었는데 그 후로 다시는 입에도 대지 않고 있다네.”

김득량의 글에서처럼 우리 조상들이 포크와 나이프를 야만인의 유물이라던가 칼과 창이라고 일컬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밥상에 떡하니 놓인 칼을 보고 놀라고 당황했을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김기수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크를 이빨달린 숟가락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도록에서 처음 알게된 사실인데, 그 기발한 묘사에 순간 폭소가 터졌다가, 곧이어 감동적인 기분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있는 힘을 다 하여 한 묘사인가. 기발함과 재기가 아니라 진땀과 노력이 느껴지는 묘사가 아닌가. 포크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김기수의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이 눈에 보일듯하다. 그리고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나는 얼마나 쉽게 쓰고 있나. 익숙한 것을 날름날름 받아먹듯이 한번도 되새기지 않고 꿀꺽꿀꺽 삼키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김기수의 글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었을 터이다. 반면 문학적인 의미에서의 글은 정보가 아니라 묘사다. 사물부터 사람까지, 사물의 본성부터 사람의 본성까지, 그리하여 마침내는

세계의 본성까지. 익숙한 것은 낯설게 보고, 낯선 것은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 경계의 지점을 새롭게 만드는 것.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바라보는 것이고, 또다시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익숙하지만 구태의 연하지 않게, 낯설지만 생경스럽지 않게. 그래서 김기수의 건조하기 짹이 없는 글은 김득량의 재기 넘치는 글보다 내게 오히려 감동적이다. 김기수가 그 글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도 보지 못했을 그 생소한 물건이 아니라 그 생소한 물건이 뜻하는 바였을 것이다. 굴욕적인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의 신분이었던 그는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하는가, 아마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커피를 열광적으로 좋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커피와 함께 이빨 달린 숟가락으로 케익도 먹었을까? 그 시대의 풍경을 떠올리는 것은 어떻게 해도 즐겁거나 유쾌한 일 이 아니다. 고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밤새 깨어있다가 날이 밝아서야 잠들 수 있었던 황제는 커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상이 모두 그를 물어뜯는 이빨과 같았을 테니.

도록을 다시 서가에 꽂아놓고, ‘황제의 식탁’과 관련된 책을 찾아본다. 도서관에 가는 즐거움 중의 또 하나는 뭔가 반짝 흥미가 생겼을 때 곧바로 그와 연관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은 많아지고, 점점 더 끈기는 사라져, 내일 봐야지 하는 것은 영원히 기약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관심가는 것이 있을 때는 곧바로 실행하는 것이 옳다.

황제에게는 서양 요리사가 있었다. 잘 알려진 손탁이 있고, 손탁의 후임으로 왔던 엠마 크뢰벨도 있다. 1906년 한 해 동안 황제의 서양식 밥상을 책임졌던 엠마 크뢰벨은 그 후 그 기록을 책으로 남겼고, 그 책은 ‘나는 어떻게 조선 황실에 오게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우리에게도 소개되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으실 것이다.

우리가 서양인들의 밥상이 신기했던 것처럼 서양인들 역시 조선인들의 밥상이 신기했다. 조선인들은 흔히 대식가로 표현된다. 그때 그려진 그림 중에는 수북이 쌓인 밥을 밥상 한가운데 두고 김치 하나 만 반찬 삼아 밥을 먹고 있는 풍경이 흔히 보인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과하게 많은 밥이다.

그러나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었던가. 서양인들이 놀라움으로 표현한 대식가의 밥은 실은 우리에겐 힘이었다.

그래서 나도 힘이 되는 밥상을 차리기로 한다. 밥이 중심인, 그것도 흰 쌀밥으로. 영양학적으로 보면 잡곡 하나 안 섞고, 반찬도 부실한 이 밥상은 매우 나쁜 밥상일 것 같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밥상이 힘이 된다. 이런 밥상에 얹힌 수많은 추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한때는 잡곡 섞어먹기 운동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쌀 아낀다고 막걸리를 못 빚게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쌀수입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쌀아 남아돈다고도 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 떠오르는 건 생일날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 미역국과 함께 놓인 흰쌀밥, 소복이 쌓아올린 고봉밥이다.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던 엄마의 말.

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서른 번을 씹으랬나, 백 번을 씹으랬나. 기억을 더듬어가며.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은 결국 정성과 진심이라고 생각하며, 황제의 식탁같은 내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나란히 놓는다.

<끝>

그해 여름, 우리는 친자매인 척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경인언니와 나는 사촌지간이었고, 생김새가 꽤나 많이 닮았으니까. 물론 얼핏 보면 닮은 점이 별로 없었다. 경인 언니는 얼굴이 통통하고 눈이 컸지만 나는 사각턱에 쌍꺼풀이 없는 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 모양이 똑같았다. 내게는 친할머니, 그러니까 경인언니에게는 외할머니인 이경자에게 물려받은, 아랫입술이 도톰한 모양새의 작은 입술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웃는 모습이 매우 비슷했다. 그러다보니 뭐랄까, 분위기도 비슷했던 모양이다. 솔직히 나는 그 분위기와 느낌이라는 게 뭔지 도통 알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에 그런가보다 했다. 아, 나랑 경인언니는 많이 닮았구나. 혈육은 혈육이구나. 우리는 그런 사이이구나, 이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꽤나 가까웠다. 우선 물리적으로 그랬다. 고모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모두 한 동네에 살았다. 김장철이 되면 함께 김치를 담았고, 가족들의 생일이 되면 잊지 않고 꼬박꼬박 모여 밥을 먹었다. 그러다보니 경인언니와 나는 서로의 친구들보다 더 자주 만났다.

나는 좋았다. 정말 좋았다. 나는 외동딸이었고, 친구가 별로 없었다. 경인 언니를 만나면 혼자 있을 때 밀려드는 어떤 감정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차오르는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것들이 가라앉곤 했다. 이제는 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래. 나는 경인언니를,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을 사랑했다. 경인언니도 그랬을까. 그랬던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데리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

그래 여름, 언니는 가족을 바꾸려 했다.

그 사람들, 낯선 사람들. 그것, 그것들. 동네 사람들은 엄마와 아빠를 그렇게 불렀다. 내 친엄마와 친아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여름에 잠시 그렇게 불렀던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영진과 오연주. 그해 우리 마을에 이사 온 ‘나이통 부부’였다. 그들은 불륜

관계였다. 이영진은 부인이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인에게는 애인이 있었다. 오연주의 경우 남편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가 있었다. 이미 정이 떨어진 지 오래였지만,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힘든 시기에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새 출발을 하려 많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들의 배우자들 역시 자신의 삶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때문에 이영진과 오연주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것뿐이었다. 불안하고 외로운 방식으로. 동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매우 남사스러운 짓거리로. 어쨌든 그들은 우리 마을의 탄천맨션 203동 3층에 자리를 마련했다. 살림을 차린 것이다.

고백하자면 열한 살이었던 그 시절, 나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들이 우리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때 내 생각의 최선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경인언니가 그 집에 놀러가자는 말을 꺼냈을 때, 어떤 거리낌도 없었다. 나는 언니를 좋아했고, 언니를 따라다니는 걸 좋아했다. 멀쩡해 보이는 어떤 여자와 남자의 집에 가서 소꿉놀이를 하듯 놀다 오는 일에 왜 위화감을 느끼겠는가.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들의 관계를 알았다고 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었을까? 그들이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경인언니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다.

열세 살이었던 그녀는 분명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언니는 그들을 좋아했다. 언니 말로는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연주를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되었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언니는 꾸준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저런 소문을 달고 다니며 많은 시선을 받을 때부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그들을 그토록 따른 것은, 그래, 역시 사랑했기 때문이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이다. 어쨌든 나는 언니의 말을 따라 탄천 맨션 203동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내게 매우 잘해주었다. 마치 친자식처럼 말이다.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그런 기분으로 우리를 대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테니까. 결혼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 이상할 정도로 우리를 잘 따르는 이 여자애들을 친자식인 셈치며 한번 지내보자.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해 여름, 우리는 한 가족처럼 휴가를 갔다.

그날 바닷바람을 여전히 기억한다. 이영진과 오연주,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나와 경인 언니. 우리는 그날 동해로 놀러갔다. 흔들리는 차 속에서 만화영화 주제가를 따라 불렀다. 지금도 부를 수 있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밤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꿈결 같은 우리의 사랑. 전생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공주와 왕자가 현대에 다시 태어나, 세상을 지키는 용사가 된다는 이야기. 아빠는 노래를 크게 틀어

주었고, 엄마는 경인언니가 만화영화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걸 웃으며 들어주었다. 나는 그런 세 사람을 보며 과자를 먹었다. 나의 친엄마라면 절대 사주지 않았을, 치토스와 버터링 쿠키. 불안한 것도 없었고 가책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건 친구 집에 놀러가는 것과 비슷했고, 놀이터에 가는 것과도 비슷했다. 치토스와 버터링. 만화 주제가. 차창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바닷바람. 웃음소리. 엄마. 아빠. 행복했다.

문제는 식당에서 일어났다.

툇집이었다. 과자를 많이 먹은 탓인지 나는 속이 더부룩했다. 뭘 먹든지 별 관심이 없었다. 반면 경인언니는 반찬이 나올 때마다 우와, 우와 소리를 내며 눈을 반짝였고 광어회가 나왔을 때는 요란하게 손뼉을 쳤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다. 아니, 부끄럽다고 느꼈다고 해야 맞을까. 언니의 행동은 어딘가 분명 과장되어 있었다. 반찬 하나하나에 이렇게 감탄할 일인가. 언니는 분명 엄마와 아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 놀이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어떤 감탄을 내뱉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을 말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낯선 강박 때문이 아니라, 익숙한 풍경이 되돌아온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우리의 진짜 가족. 그러니까 고모네 가족들과 우리 가족이 모여 있을 때, 경인언니는 항상 그런 과장된 행동을 하곤 했다. 큰고모에게 유독 친근하게 굴었고, 외삼촌과 외숙모 – 나의 친부모 –에게도 그랬다. 마치 우리 가족은 굉장히 다정하고 화목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걸 자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처럼 쉼 없이 깔깔대며 웃고 감탄을 연발했다. 어색했다. 왜나하면 …… 실제로 우리 부모님과 언니의 부모님들은 그다지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었고, 큰고모 역시 자신의 형제들에게 데면데면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심도 없었으면서, 한 마을에서 왜 그 토록 오래 붙어 살았을까. 뭐하러 김치를 나누어 먹고, 생일 때만 되면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밥을 먹어 댔을까. 왜 그랬을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언니의 행동에 살짝 긴장해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와, 진짜 이게 뭐야?”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 그 가게에는 큰 소리를 낸 남자와 일행인 여자, 그리고 우리들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으니 말이다. 가게 주인이 힐끔거리며 남자를 쳐다보았다. 들어보니 별 건 아니었다. 남자는 가게에 놓여 있는 신문을 보고 화를 낸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 신문에 실린 어떤 불행한 기사 때문에 남자가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남자는 그냥 그 신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만 좀 해.”

남자의 앞에 앉은 여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남자는 소주를 들이키며 대답했다.

“뭘 그만해? 이런 신문은 없어져야 해. 내가 저것만 보면 아주 열불이 터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또 소주를 마시며 말했다.

“다시는 이 가게 안 온다. 내가 열이 뻗쳐서 살 수가 없네. 어떻게 이따위 신문을 구독해?”

여자는 포기했다는 듯 혼자 회를 집어 먹었다. 남자는 계속 혼자서 말했다.

“사람이 말이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는 모른 척, 사이다를 컵에 따라 내 앞에 놓아 주었다. 나는 사이다를 한 번에 다 마셨다. 남자는 계속 혼자 떠들었다. 같은 말이었다. 이 신문은 나쁜 것이다. 나쁜 짓을 하는 건 옳지 않은 짓이다. 이 가게는 옳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에 가게 주인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말했다.

“내가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신념은 있어.”

여자가 젓가락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지긋지긋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엄마와 아빠는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경인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경인언니는 마치 그들을 보지 못했다는 듯 행동했다. 여전히 행복을 과장되게 과시하며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모두를 지켜보았고, 천천히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뭔가 참을 수가 없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경인언니가 가방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언니에게 물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도서관 책에서 복사했어요.”\*

아빠가 종이를 건네받았다. 그의 얼굴이 조금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경인언니를 달래듯 말했다.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리고서 종이를 언니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보았고, 왜 두 사람이 그렇게 놀랐는지 곧장 이해했다. 그건 입양서류였다. 아, 언니는 그들에게 자신을, 아니 나와 자신을 함께 입양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말 그대로 엉엉 울었다.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엄마와 아빠는 당황했고, 언니 역시 그랬다. 엄마와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가게에서 나왔다. 술에 취한 남자가 계속 화를 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나는 차 속에서도 내내 울었다. 동해로 떠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네 사람 중 누구도, 몇 시간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집 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는 친부모님을 마주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 앞에 모여 들어서 뭐라 뭐라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또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의 친부모님에게 달려가지는 않았다. 그것 때문에 울었던 것 이 아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온종일 엄마, 아빠라고 부른 사람들과 나의 진짜 엄마 아빠 사

이에서 나는 누구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다. 경인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은 채 어디로도 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결국 우리를 움직인 건 친부모님들이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왔고, 우리를 끌어안았고, 자신들 쪽으로 잡아 당겼다. 우리를 그렇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놨다.

그 일은 그렇게 끝났다.

이후 우리, 그러니까 고모의 가족들과 나의 가족들, 그리고 경인언니는 그때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영진과 오연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 아주 나중에, 두 사람이 결국은 헤어졌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해 여름 내내, 내가 엄마와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나의 엄마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선택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최근,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 무엇도 부끄럽지 않다.

---

\* 이 대사는 영화 마틸다의 한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다.

## 봉인된 시간. 4

신경숙  
소설가

- 자전거 빌려주는 집이 이곳에 생길 줄은 몰랐는데요?

4.3 때 가족이 모두 학살 당하고 혼자 살아남아 후박나무

아래에서 아침마다 일생을 술을 마시며 살다가 이태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아저씨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잠깐 생각해보려고 했으나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아 나는 유정씨에게 애먼 자전거 빌려주는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서 나도 모르게 이미 지나쳐온 그 집을 돌아다보았습니다. 나의 눈속에서 그 집 낮은 담장 위의 소라 껌데기, 혹은 전복 껌데기가 빛 속에서 반짝거려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저 살짝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도 통통 부어있는 눈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문득 오년 전에 내가 이곳에 머물 때 아저씨가 저 후박나무 아래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고 있었든 그 일을 멈추고 귀를 바짝 세우고 그 노랫말을 알아 들으려고 애쓰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알았습니다. 유정 씨가 그 아저씨의 가족이 4.3 때 모두 학살 당했다고 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때는 끝내 알아들을 수 없던 그 아저씨가 흥얼거리던 노랫말이 저절로 해독되어 이미 내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 왔다는 것을요. 걸음을 뗄 때마다 그 아저씨의 노랫소리가 귀에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정 씨 보폭 보다 한 발 앞서 걸었습니다. 유정 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걸으세요, 하며 자신도 보폭을 크게 잡았습니다.

- 자전거 탈 줄은 아는 거지요?

유정 씨의 목소리가 일렁이다 멀어지는 바람 속에서 잘려나갔습니다.

- 왜요? 자전거 같은 거 못 탈 사람처럼 보여요?

- 아니요, 잘 탈 사람처럼 보여요.

- 그런데 왜 물어요?

- 대답을 하나 안하나 보려고요.

유정 씨는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이상한 지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자전거 빌려주는 집은 마을 안의 초등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난 듯이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초입에 세워져

있는 몇 채의 빌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에는 빌라를 짓느라 기초를 닦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고동색과 아이보리 색이 섞인 드라이빗 공법의 외벽은 새 건축물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서 있더군요. 내게만 그리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빌라는 어쩐지 이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나지막한 돌담도 크고 작은 후박나무도 없이 빌라의 1층은 자동차를 세울 수 있게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엔 용달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 그래 타지에서 아이를 가진 이주민들이 이사를 왔나요?

내가 빌라를 바라보며 묻자 그걸 잊지 않았네요? 중얼거리며 유정 씨도 빌라 쪽을 돌아다보았습니다. 마을에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없자 전쟁 후에 지어진 이곳 초등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5년 전에 들었습니다. 이곳 초등학교에는 수령이 몇십 년 되는 나무들이 학교 앞과 뒤에 무성한 그늘을 이루며 살고 있지요. 5년 전에 이곳에서 머물 때 동네 산책을 하는 도중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소롯한 길을 따라 들어갔다가 발견한 이 마을의 초등학교는 나를 단박에 사로잡았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초등학교의 화단엔 이 섬의 꽃들이 만개해 있고 나무들은 학교의 앞뒤에 우뚝우뚝 서서 큰 그늘을 만들고 있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는 화단으로 들어가 발돋움을 해서 교실 안을 들여다봤는데 교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칠판 앞의 교탁과 그 앞에 학생들이 사용했음직한 책상과 의자들이 나란나란 놓여있고 그 텅빈 교실에 찾아든 별만 어룽어룽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운동장 가에 나란나란 심어진 오래된 수령의 나무들 사이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초등학교에 사람의 기척이 없는건지 궁금해서 그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유정 씨에게 학교가 왜 텅 비었느냐고 물었던 기억. 그때 유정 씨의 대답은 마을에 학교에 다닐만한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폐교의 위기를 막고자 타지에서 이주민을 받기로 했고 이주민들이 이 섬의 이 마을로 들어오는 경우에 집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가 꽤 되어서 마을에 처음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때도 공동주택이라고만 했지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빌라라고 말해 준적도, 어디에 세워질거라는 것도 말한 적이 없는데도 나는 자전거를 빌리려 가는 길에서 새롭게 지어진 빌라를 보는 순간 저곳인가 보다, 라는 생각 저절로 들었는데 틀리지 않았던 거지요.

- 의외로 이곳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 계획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이 지어졌어요.

- 학생들도 많아졌겠군요.

- 예. 일학년은 없지만 이학년 셋, 삼학년 일곱, 사학년 넷, 오학년 열둘, 육학년이 여섯... 그렇다고 들었어요.

- 숫자를 다 알고 있네요?

내가 묻자 유정 씨는 그러네요, 내가 ..... 하며 웃었습니다. 유정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아이들 양호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했습니다.

- 유정 씨가요?

내가 되묻자 유정 씨가 멋쩍게 웃으며 섬에 들어오기 전에 육지의 초등학교에서 양호선생님이었다고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다시 알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유정 씨의 전직이 한번도

학교 양호선생님이었을거라는 것은 짐작을 못했습니다. 집을 꾸며놓은 것을 보고, 특히 내가 묵고 있는 유정 씨의 집의 거실에 아일랜드 식탁을 유정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유정 씨가 이 섬에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 쪽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했던 적은 있습니다. 다시 앞장서서 초등학교로 들어서는 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유정 씨가 혼잣말 하듯 웅얼거렸습니다.

- 갑자기 이런 얘기 이상할 테지만 나는 양호 선생이라는 내 직업에 만족했었어요. 어려서 어쩌다 할머니랑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아프면 내가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를 지켰거든요. 할머니는 한 밤에 열이 나곤 했었는데 그때면 나도 모르게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와서 수건을 적셔서 할머니 이마에 올려주곤 했었어요“

.....

- 할머니 모시고 보건소 다니는 일도 어려서부터 했었어요. 할머니가 약을 순서대로 잘 드시게 하려고 약봉지에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 써서 볼이기도 하고 ..... 할머니는 그렇게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까지 내가 챙겨주는 약을 드시다가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이 생각나요. 병실에서 나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셔서 내가 할머니 가까이 가자 두 팔로 제 머리를 안으시더니 내 귓결에 대고 고맙고 감사하다 ..... 고 가쁜 숨을 쉬시며 말씀 하셨어요.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나는 가도 되지야 ..... 하시면서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할머니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어린 나를 두고 가시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시면서 버티셨다는거요.

나는 갑자기 듣게 된 유정 씨의 할머니 얘기에 유정 씨를 흘깃 바라보았다. 유정 씨는 담담해보였다. 그냥 어제 날씨가 어쨌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 그렇게 양호선생이 되는 일이 자연스러웠거든요.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나를 찾아올 때면 할머니가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이들과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도 그랬어요. 배 아픈 아이는 배를 쓸어주고 운동장에서 무릎 깨져서 양호실에 오는 아이들 흐르는 피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밴드 붙여주고 하는 일들이 좋더라고요.

유정 씨는 얘길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혼자서 가만 웃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정 씨를 잘 알게 된다고 해도 저렇게 혼자 가만 미소짓는 그녀의 시간으로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겠지요. 내가 혼자 웃는 유정 씨를 바라보니까 유정 씨가 웃음을 거두고는,

- 죄송해요, 혼자 웃어서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 도시에서 양호선생으로 재직할 때 어떤 여름날이었는데 어떤 아이가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수업 중에 양호실에 거의 실려다오다시피 했는데 내가 머리 어디가 가장 아프냐고 물었을 뿐인데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뿐인데 ..... 생긋 웃으며 다 나았다고 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 유정 씨가 그런 데가 있어요.

- 내가요?

그렇습니다. 유정 씨에게는 그런 구석이 있어요, 선생님. 그런 구석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구석. 별 말을 안 하는데도 유정 씨 생각을 하면 어떤 쓰다듬을 받고 있는 느낌. 그리고 보니 선생님은 그런

구석을 더 강하게 지니고 계시지요. 제가 뉴욕에서 머물 때 언젠가 한번은 선생님이랑 맨해튼 외곽의 디아재단의 전시를 보러 간 적이 있었지요. 쇠를 사용해서 둥근 원형의 작품들이 마치 책장처럼 펼쳐졌던 인상적인 전시였는데 그 전시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 기차를 타고 디아재단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을 때 생각만 선명하게 납니다. 어쩌면 선생님은 잊으셨을지도. 기차 안에서 무심히 차창 바깥을 내다보고 있던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팔을 펼쳐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시나 하고 팔을 내밀었더니 선생님이 몸을 약간 제 쪽으로 돌리시고는 제 팔을 조용히 쓸어내려 주셨어요. 어깨 쪽부터 팔꿈치 아래까지 계속해서 쓸어내려주셨어요. 처음엔 왜 그러시나 하다가 선생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자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차창 밖의 스쳐지나가는 풍경을 무연히 내다보다가 그만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짧은 잠은 달콤하고 깊었어요. 슬며시 눈을 떠보니 선생님이 그때까지 제 팔을 가만가만 쓸어내리고 계셨어요. 디아재단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역에 이를 때까지 선생님이 제 팔을 쓸어내려주던 기억. 유정 씨가 양호 선생으로 만났던 피아노를 치기 싫어 두통에 시달리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이야기를 듣는데 선생님의 그 손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디선가 들으니 이렇게 무게 없이 바람결처럼 몸을 쓰다듬어 주면 새 기운이 고인대, 라고 지나가는 말씀처럼 말하셨지만 제게는 그게 사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기차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밤에 잠을 설쳐서 피로가 쌓여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기차에서 내렸을 때는 발걸음도 가볍게 선생님과 그 전시를 즐겼지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이렇게 자주자주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출몰해서 그 기운을 전해주는 것도 그 증명이지 않을까요. 말 수 적은 유정 씨가 자신이 양호선생으로 재직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저도 선생님 이야기를 유정 씨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가만 참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유정 씨도 그런 사람 중의 한사람인 것 같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이상한 일이네, 생각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입에서,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이 팬데믹 시절에 살던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섬으로 들어와서 어제까지만 해도 유정 씨네 집 거실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아니군요, 꼼짝하지 않고만 있었으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한밤중에 무슨 유령처럼 흐느적흐느적 몸을 일으켜 폭식을 해대던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유정 씨에 대한 예찬이 흘러나와서요. 유정 씨는 제 말을 들으며 또 가만 웃었습니다. 내가 멋쩍어져서 사실이에요, 하니까 유정 씨는,

- 그러게요, 내가 아이에겐 그런 존재였던 것도 같아요.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 엄마 국성이 참 대단했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하교하지 않으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집에 가면 밤이 깊도록 피아노 레슨을 받아야 하니까 …….

제가 모르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유정 씨의 얼굴이 갑자기 쓸쓸해졌습니다.

- 그런데 그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내가 건네 준 약을 먹은 아이 하나가 그 약이 맞지 않았던지 가슴이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게 되었는데 나라는 사람은 그만한 그릇밖에 못되었는지 그 후로는 양호 선생 일이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

-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

- 그래서 살던 곳을 떠나 이곳으로 왔는데..... 결국 다시 이 섬의 초등학교 양호선생님이 되었네요.

- 좋은데요.

- 폐교를 앞둔 학교의 대책이 통했다는 게 나에겐 신선했어요. 물론 이 섬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사연이 있을 것이고 이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 아이들이 원해서 이 섬으로 온 것일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이들이 옮겨 심어지는 나무같이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섬으로 이동해 와서 어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양호 선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지원을 했어요.

- 급료는 받고 있는거지요?

유정 씨는 급료는 받고 있는거지요? 라는 제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밝고 맑게 큰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 그럼요,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야지요.

그런 얘기를 나누며 오솔길 사이 건너에 있는 두 채의 무덤을 지나 자전거 빌려주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이 건너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집이 항상 비어 있어서 5년 전에 그곳을 지나다닐 때면 고개를 빼고 안을 들여다보던 작은 마당을 지닌 빈 집이 자전거 빌려주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의 어느 집이나 다 그렇듯이 낮은 돌담이 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돌담 한 쪽에 부재시에는 전화를 걸어달라는 표시와 함께 01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가 적힌 팻말이 걸려 있지 않았다면 그 집이 자전거 빌려주는 집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네요, 마당에 여러 대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긴 했으니 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게 표시가 되었겠군요. 유정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놓은 것인지 안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미리 한쪽으로 세워둔 자전거를 유정 씨에게 가리키며 방금 체인에 기름칠을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유정 씨가 바퀴를 눌러보자 아주머니가 방금 바퀴에 바람도 ‘쎄게’ 채워두었다고 발음하더군요. 아주머니가 바람 ‘쎄게’ 채워두었다고 할 때에야 저는 아주머니 얼굴을 바로 봤습니다. 자글자글한 퍼머 머리에 그을린 얼굴의 이 곳 아주머니들의 일반적인 얼굴인데 말할 때마다 하얀 덧니가 드러났습니다. 덧니가 그렇게 하얗 수도 있다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유정 씨가 자전거 빌리려 가자고 했을 때 그 집의 주인이 남자일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챙겨주고 돈을 받고 해가 저물때까지만 반납을 하면 된다고 체크를 하면서 하얀 덧니를 내보이며 웃을 때마다 묘하게 같이 웃게 되었어요.

- 어느 쪽으로 나가볼까요?

유정 씨는 먼저 자전거위에 올라타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 바당 쪽으로 나가 봅소

유정 씨는 제게 묻는 것 같았는데 대답을 아주머니가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요즘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으니 바다 쪽으로 나가면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을 수 있을거라고 덧붙였어요.

- 그럴까요?

다시 동의를 구하는 유정 씨에게 그러자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은 눈 앞에 바다가 바로 보이지는 않으나 바다와 멀지 않습니다. 아마 자전거를 타고 십분 정도 가면 바다에 닿을 겁니다. 예전에 이 섬사람들은 어쩌든지 바다 쪽에 먼 곳에 집을 짓고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는 집이 바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곧 삶의 안전성하고 관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정도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바로 바다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다 폭풍의 위력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섬의 바람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바다의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안전거리는 20키로는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어도 그쯤은 거리를 두고 집을 짓는 게 좋다고요.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 기준은 아니지만 예전엔 바닷가 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보다 가난하다고 보면 맞다 했습니다. 저는 내륙에서 태어나고 내륙에서 자란 사람이라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얼핏 섬에서 살려면 기왕 매일 바다를 볼 수 있는 바닷가 쪽에서 사는 게 좋지 않나, 무심코 그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닷가 쪽에서 한 달 쯤만 지내보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해줬던 사람이. 그는 말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당장 열흘만 지나도 바다 쪽은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더군요. 특히 이곳 섬은 비와 바람이 많아서 매일 불어오는 모래 섞인 바람에 매일 창틀을 닦지 않으면 모래 먼지가 수북한데 아무리 좋은 창틀을 사용해도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모래먼지를 막을 도리가 없다고요. 빨래를 널 수가 없고 설령 널어놓는다고 해도 습도가 높아서 잘 마르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토박이로 사는 타지 사람들이 바닷가 쪽에 집을 지으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나 할 수 없이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육지에서 이 섬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먼저 바닷가에서 살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페달을 굴리며 먼저 출발한 유정 씨를 따라 자전거 위에 올라타면서 자전거에 달린 거울 속으로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부기가 빠지지 않아 퉁퉁한 눈자위를 잠깐 응시하다가 유정 씨를 뒤따라 페달을 굴렸습니다. (계속)